

“부도와 대화... 선지식 가르침 들리는듯”



◀ 화엄사 입구에 있는 부도밭. 화엄사에 머물다 긴 고승들의 채취가 느껴진다.

▶ 동부도를 그대로 본뜬, 빼어난 조각미의 연곡사 북부도(국보 제54호) 앞에서 소재구선생의 안내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의 눈빛이 진지하기 이례적이다.



종교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시발점이 '삶'과 '죽음'의 명제로부터 시작한다. 과학적 지식이 극대화되고 분초를 다투어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삶과 죽음은 여전히 인간의 큰 문제이다. 오랜 기쁨으로 단풍이 화려한 자태를 미처 드러내지 못한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120명의 불교문화 테마여행객들은 화엄사·연곡사의 석탑과 석등, 부도를 찾으며 '삶'과 '죽음'의 회두에 몰입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0월 화엄사·연곡사

"한국인의 삶과 죽음"

새벽 3시30분. 그들 달빛이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산세가 신랄스럽기까지 한 지리산 기슭을 밝히고 있었다. 화엄사상의 으뜸도량 전남 구례군 화엄사(주지 종일).

산문 입구 부도전에서 약 1백미터를 오르면 일주문이 나타난다. 일주문을 지나면 문수·보현동자상을 안치한 금강문. 그 뒤로 각각 사천왕상을 안치한 제3문 천왕문을 갖춰 여느 사찰에서



◀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 그 앞의 석등(국보 제12호) 역시 우리나라 석등중 가장 크며 각황전과 짝을 이뤄 담당한 위엄을 느끼게 한다.

볼 수 있는 불이문(不二門) 대신 금강문을 포함시켜 삼문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인도승 연기조사가 창건했고, 670년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교학을 전파한 10개 도량, 즉 화엄십찰 중 하나로 등장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백암대사가 중건한 대웅전(보물 제299호)은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대웅전과 90도 떨어져 축대로 이어진 곳에 국보 제67호인 각황전이 능률하게 서 있다. 정면 7칸 측면 5칸의 2층 팔작지붕 형태로 장중하면서도 세련된 기품을 지닌 우리나라 최대의 목조건물로 지붕 뒷편으로 청정한 송림을 이고 서 있는 모습이 고졸하면서도 담담함을 느끼게 한다. 각황전은 본래 장륙전이라 불리던 곳으로 이 장륙

각황전의 늠름함에 탐방객들 숙연 사사자석탑 보며 효도 의미 되새겨

역은 숙종때 예조참판 성재 이집후가 썼다. "생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낳 날입니다.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을까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 돼야 합니다." 화엄사 포교국장 진조스님은 각황전 앞 108계단을 돌아 오르면 사사자삼층석탑(일명 세존사리탑·국보 제35호)과 석등에 무르녹아 있는 효(孝)의 의미를 전하며 가슴에 새길 것을 이렇게 당부했다. 특이한 모양의 이 석탑은 자장승사가 화엄사에 머물며 창건주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조각수법과 형태가 다른 곳에 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형(異形)석탑으로 흔히 '효대'라고 불리워진다. 아름다운 세 부도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곡사(주지 종지) 역시 연기조사가 창건한 도량이다. 단풍철인 요즘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연곡사 오르는 양반 길에 대담이는 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어 그 자체가 장관이다. 연곡사가 위치한 피아골은 6·25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동시에 민중의 끈질긴

정이 유명한 것은 3층의 사방 7칸짜리 이 전각 벽면에 붙여 새긴 화엄경을 풀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이 화엄석경은 임진왜란 당시 사찰이 불탈때 산산조각이 나 그 파편이 현재 영정에 보관되어 있다. 이 경전중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을 풀고 새겨 그 석경을 3층 통벽면에 둘러놓은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엄하고 성스럽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소중한 성보가 훼손되었는지...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다. 임진왜란때 불탄 장륙전은 1702년(숙종 28)에 다시 중건되었는데 여기에는 한 거지노파가 지극한 서원을 발해 공주로 태어나 중창불사를 도왔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계달으신 부처님이 계신 곳'이란 의미의 '각황전(覺皇殿)' 편

동부도 처마모양 상륜부서 신라 건축미학 유추 가능

동부도 세워져 있어 당시 선사들이 머물렀던 곳을 알 수 있게 한다. 삼천강을 거슬러 연곡사와 화엄사를 넘나들며 사부대중들이 스승을 좇아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감화를 일으켜 주신 스승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존대하시도록 그처럼 아름다운 탑을 지었다. 대체로 온 조각을 기단을 마련하고 대좌에는 난간을 둘러 장식하였으며 그 위로 사리각을 안치하고 지붕을 덮었는데 그 사리각을 보며 우리는 신라시대의 목조건축이 어떠한지 하는 의문(疑問)도 어렵잖이 유추할 수 있으며 서쪽에 세워진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탑 또한 먼저 세워진 인근의 옛탑을 본 뜬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이 부도들의 주인공이었던 선사들이 누구였는지 부지런히 탐구하여 명백하게 밝혀드리는 일이다. 무지한 증생으로 하여금 사부니즘의 토속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생사고뇌의 해탈을 불법의 진리로서 인도하고 한국불교의 정신적 기틀을 이룩하신 스승들이었기 때문이다.



◀ 완벽한 형태미와 섬세한 조각장식의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부도중의 꽃'으로 불리는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의 상륜부 부분.

살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그 참혹했던 세월을 견디며 부도들과 함께, 상층석탑은 천년의 침묵을 안고 여전히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으로 내방객들을 맞고 있었다. 부도중의 꽃이라는 찬사가 꽃말이 아닌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동부도(국보 제53호)는 팔각기단 연화방점에 팔각당 몸체를 얹고 팔각기둥을 띄운 전형적인 팔각당 사리탑으로 날렵하고 경쾌한 형태가 뛰어나 그 어디를 보아도 정교하고 세련된 조각미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승의 뛰어난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성과 솜씨를 다해 만든 당시 제자들의 속깊은 마음에 숙연해 지며 요즘 걸만 화려한 일부 사찰불사와 저절로 비교되는 것이다. 안내자 소재구 학예연구관은 "부도는 그 자체가 큰 스님들의 수행기공과 만든 당시의 예술을 새겨 엮을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며 "부도밭은 율리언스처럼 보다 정갈하게 씻긴 영혼의 원터처럼 평화로워 직접 부도를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 저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의미와 육체는 소멸되더라도 정신은 면면히 살아있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까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도필선 사진=고영애 기자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전문가 안내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이란 생성과 소멸의 원리로 움직인다고 했다. 영원이란 없는 것, 그러기에 그 영원한 것을 향한 구도의 길을 우리는 갈구하였고 여기에 부처님은 세상에 나와 생사를 초월한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하셨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삼보의 숭고함을 밝히고 정법에 앞장섰던 분들은 청사에 빛나는 명승(名僧)들이었다. 그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초월하고 생사의 번뇌에서 해탈하는 가르침을 정함으로써 만인의 스승이 되었던 것이다. 스님들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화엄경》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이로써 연기조사는 화엄사의 대불사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장륙전(각황전)을 세워 장륙존상을 안치하고 백제불을 온통 화엄석경으로 둘러싸고 이에 걸맞는 거대한 석등을 지어 법등을 밝혔다. 대웅전 앞에는 생탑을 세우고 동편의 언덕위에는 사자탑을 세웠다. 모두 통일신라 전성기 이후 이루어진 걸작의 석조물이었다. 그중에서도 사사자삼층석탑은 우수하고 독창적인 조형성은 물론 탑을 향하여 합장한 보살상과 탑속에서 정성을 올리는 공양상의 배치로 인하여 더욱 장엄한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연곡사에는 북부도, 동부도, 서부도가 남아있으며 동부도비와 연각선사비, 삼층석탑

동부도 처마모양 상륜부서 신라 건축미학 유추 가능

동부도 세워져 있어 당시 선사들이 머물렀던 곳을 알 수 있게 한다. 삼천강을 거슬러 연곡사와 화엄사를 넘나들며 사부대중들이 스승을 좇아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감화를 일으켜 주신 스승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존대하시도록 그처럼 아름다운 탑을 지었다. 대체로 온 조각을 기단을 마련하고 대좌에는 난간을 둘러 장식하였으며 그 위로 사리각을 안치하고 지붕을 덮었는데 그 사리각을 보며 우리는 신라시대의 목조건축이 어떠한지 하는 의문(疑問)도 어렵잖이 유추할 수 있으며 서쪽에 세워진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탑 또한 먼저 세워진 인근의 옛탑을 본 뜬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이 부도들의 주인공이었던 선사들이 누구였는지 부지런히 탐구하여 명백하게 밝혀드리는 일이다. 무지한 증생으로 하여금 사부니즘의 토속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생사고뇌의 해탈을 불법의 진리로서 인도하고 한국불교의 정신적 기틀을 이룩하신 스승들이었기 때문이다.

◀ '효대'로 불리는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수맥 파차단 방습단열지 알숨 Alsom 개발

알숨 Alsom은 수맥파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알루미늄소재 신제품 개발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최초로 개발된 수맥파차단 방습단열지 알숨 Alsom은 간편한 시공으로 수맥파를 차단하면서 단열과 습기, 독성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신제품으로 저렴한 시공비와 열효율을 한층높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순도 99.6%이상 고순도 알루미늄 2겹사용
단 열	알루미늄 불성상 복사열선 95%차단
완벽한 방습, 방수, 방음효과	이스판트 하스 혼합물 사용
독 성 차단	시멘트 몰타르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중무게를 인체하여 철거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경제적인 가격	알루미늄 재질 사용으로 가격저렴

알숨 1000

- 수맥파의 가공할 위협 차단효과! 수맥이 흐르거나 습기가 많은 대지에 건축된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잔병이 많을뿐 아니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법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의 수맥파와 습기를 차단키 위하여 본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복사열선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효과! 건축구조물에서는 열효율의 70%정도를 복사현상이 주도합니다. 알루미늄단열재는 복사열선을 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재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방습단열재입니다.

알숨 100

- 단열과 방습만을 목적으로 사용시는 알숨 1000이 가격 저렴하여 훨씬 경제적!

· 실용신안특허출원 제2670호 · 실용신안특허등록 제89207호 · 상표등록특허출원 제45121호

전국대리점모집

제조원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대) FAX : (0345)498-8998